

## 心無體用辯\*

滉은 학문이 얇고 누추하여 오직 先儒의 定本の 말씀을 삼가 지킬 줄만 알아 분명하고 명백하게 공부를 하였으나 아직도 통투하게 해득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타 그윽하고 깊으며 현묘한 의논은 실로 미칠 겨를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전에 朋友들 사이에서 비록 ‘마음은 體와 用이 없다.’는 한 句를 가지고 와서 묻는 자가 없었으나, 나는 일찍이 이것을 가슴 속에 두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金而精<sup>1)</sup>이 보여 준 蓮老<sup>2)</sup>의 글을 보니, 오로지 이 구를 가지고 부연하여 말을 만들어서 서로 변론하고 質正하려고 하였는데, 그 뜻이 深奧하고 깊어서 쉽게 엿보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에 나는 우선 先儒들의 ‘마음에 체와 용이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밝히려 하는 바, 그 내용은 모두 근거한 내력이 있다. 寂과 感을 체·용이라 한 것은 大易에서 근본하였고, 動과 靜을 체·용이라 한 것은 戴記<sup>3)</sup>에서 근본하였고, 未發과 已發을 체·용이라 한 것은 子思에게 근본하였고, 性과 情을 체·용이라 한 것은 맹자에게서 근본하였으니, 이는 모두 마음의 체와 용이다.

사람의 한 마음이 비록 六合<sup>4)</sup>에 가득하고 고금에 뻗쳐 있으며, 幽明

\* 퇴계학연구원, 『退溪學 譯註叢書』 제10권(1996)에서 발췌·수록함

- 1) 金而精 : 이정은 퇴계의 문인인 金就礪의 자이다. 호는 靜菴·潛齋인 바, 그의 號說인 潛齋說이 뒤의 본문에 보인다.
- 2) 蓮老 : 蓮坊 李球(?~1573)를 지칭한 것이다. 자는 叔玉이며 花潭 徐敬德의 문하에 들어가 氣一元論을 발전시켰다.
- 3) 戴記 : 禮記를 가리킨다. 漢나라 때에 戴德이 儀禮에 註를 달았으며, 그의 조카인 戴聖이 예기에 주를 달았는데, 당시에 대덕을 大戴, 대성을 小戴라 칭하고, 의례를 大戴禮記, 예기를 小戴禮記라 부른 데서 연유한 것이다.
- 4) 六合 : 上下와 사방, 곧 宇宙를 일컫는다.

을 관통하고 만 가지 隱微한 것을 통한다 할지라도 그 요점은 체와 용, 이 두 가지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체·용이라는 명칭은 비록 先秦의 책에 보이지 않으나, 程子和 朱子 이래로 여러 儒賢들이 도를 논하고 心을 논할 때에 모두 이것을 주장하여 강론하고 분석하면서 행여 밝혀지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으며, 陳北溪<sup>5)</sup>의 心說은 더욱 이것을 지극히 말하였으니, 어찌 일찍이 마음에 체와 용이 없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겠는가.

지금 연로의 말은 ‘마음에 진실로 체와 용이 있으나 그 근본을 더듬어 보면 체와 용이 없다.’고 하였다. 황은 들으니,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하나 뿐인데 체를 가리켜 말한 것도 있고 용을 가리켜 말한 것도 있다.”하였으니, 이제 이미 체와 용이 있는 것을 가리켜 마음이라 하였다면, 마음에 대한 설명은 이미 다 끝난 것이다. 또 어찌 별도로 체·용이 없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 마음의 앞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연로는 또 말하기를 “動과 靜은 실제 理이고, 체와 용은 빈 말이다. 道理는 본래 체·용이 없는데, 동과 정을 가지고 체·용으로 삼는다.”하였다. 황은 생각컨대, ‘도리어 동과 정이 있기 때문에 그 靜한 것을 가리켜 체라 하고 그 動한 것을 가리켜 용이라 했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도리가 동하고 정하는 내용이 곧 도리의 체와 용의 내용 자체인 것이다. 어찌 체와 용이 없는 한 도리가 별도로 있어 근본이 되어서 동·정의 앞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연로는 또 말하기를 “體자는 形上에서 나왔고 用자는 動上에서 나왔으니, 動하기 이전에 어찌 일찍이 용이 있을 수 있으며 形象이 있기 전에 어찌 일찍이 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邵子의 ‘본래 體가 없다.’는 말씀을 인용하고, 말하기를 ‘체가 없다면 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하였다. 황은 생각컨대 ‘체와 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도리상에 나아가 말한 것이 있으니, 예를 들면 沖漠하여 조짐이 없으며 萬象이 森然히 이미 갖추어졌다는 것이 이것이요, 事物上에 나아가 말한

5) 陳北溪 : 북계는 陳淳의 호이다. 자는 安卿이며 주희의 문인이다.

것이 있으니, 배는 물에 다닐 수 있고 수레는 육지에 다닐 수 있으며, 배와 수레가 물로 다니고 육지로 다닌다.’는 말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주자가 呂子約<sup>6)</sup>에게 답한 편지에 말씀하시기를 “形而上의 입장에서 말하면 충막하여 조짐이 없는 것이 진실로 체가 되고, 사물의 사이에 발로되는 것이 용이 된다. 하지만 만일 形而下를 가지고 말한다면, 사물은 또 체가 되고 그것의 理가 발현하는 것이 용이 되니, 일률적으로 형이상을 도의 體라 이르고, 천하의 다섯 가지 達道<sup>7)</sup>를 도의 용이라 이를 수는 없다.”하였다.

그런데 이제 배와 수레의 형상을 체라 하고, 물을 다니고 육지를 다니는 것을 용이라고 한다면, 비록 ‘형상이 있기 이전엔 체가 없고, 動하기 이전엔 용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충막하여 조짐이 없음을 체라고 한다면, 이 체는 형상이 있기 이전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萬象이 여기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용이라고 한다면 이 용은 동하기 이전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관찰해 보면, 연로가 말한 ‘체는 象에서 나오고 용은 動에서 나왔다.’는 것은 다만 사물의 체와 용으로서 아래쪽에만 떨어져 있는 형이하를 말했을 뿐이요, 실제로는 충막하고 조짐이 없어 체와 용이 하나의 근원인 형이상의 묘함을 버린 것이다.

소견이 오직 지엽적인 형상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상이 있기 이전엔 체가 없다.’하고, 邵子의 말<sup>8)</sup>을 인용하여 증명하였는데, 이는 소자의 이른바 ‘體가 없다’는 것은 다만 형체가 없을 말했을 뿐이요, 沖漠無朕의 본체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모른 것이다. 체를 인식함에 이

6) 呂子約 : 자약은 송나라의 학자인 呂祖儉의 자이다. 東萊 呂祖儉의 아우이며 시호는 충이다.

7) 천하의 다섯 가지 達道 : 달도는 사람 누구나 공통으로 행하여야 할 도리로, 다섯 가지 달도란 五倫을 가리킨다. 中庸에 “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의 다섯 가지 도리는 천하의 달도이다.”하였다.

8) 邵子의 말 : 소자는 康節 邵雍을 가리키는 바, 그가 지은 皇極經世의 “神無方而易無體 滯於一方 則不能變化 非神也 有定體 則不能變通 非易也 易雖有體 體者 象也 假象以見體 而無體也.”란 말을 지칭한 것이다.

미 두루하고 완벽하지 못했다면, 용을 인식함에 있어서 두루하고 완벽하지 못함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 충막하여 조짐이 없는 것은 乾·坤에 있으면 無極과 太極의 체가 되어 만상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지극히 虛하고 지극히 靜한 체가 되어 만 가지 용이 구비되어 있으며, 사물에 있어서는 또 발현되고 流行하는 용이 되어 때와 장소에 따라 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呂子約이 이르기를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達道라 하고, 충막하여 조짐이 없는 것을 도의 本原이라 한다.”고 말하자 朱子는 이를 비판하기를 “모름지기 이 당연한 이가 충막하여 조짐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理 밖에 별도로 충막하여 조짐이 없는 한 물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하였다)

그러므로 程先生은 이미 ‘체와 용이 하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였고, 또 반드시 ‘드러남과 은미함은 간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체와 용 두 글자는 생동감이 있어서 죽은 법이 아니며, 원래 포함되지 않음이 없어서 묘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헤아려 본다면, 어찌 다만 體字가 形上에서 일어났다고 하여 形上이 있기 이전에는 일찍이 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찌 用字가 動上에서 일어났다고 하여 동하기 이전에는 일찍이 용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 太極을 聖인이 억지로 명명한 것이라 하여 체·용이 없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주자는 太極圖說의 해석에서 반복하여 체와 용 두 글자를 가지고 이를 밝혔다)

더구나 孔子는 “사람의 마음은 그 방향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맹자는 “다만 마음이 두루 흐르고 변화하여 神明不測함이 묘해서 이것을 잃기는 쉽고 보존하여 지키기는 어려움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였으니, 이는 바로 이 마음의 용이 사물의 사이에 발현됨을 말씀한 것이다.

만일 마음이 체와 용이 없다고 이른다면 어디로부터 이 용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항은 항상 생각하기를 ‘성현의 책은 읽기가 쉽지 않고, 의리는 精微하여 연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서로 전해오는 宗

는 함부로 고칠수 없고, 의논을 세워 남을 깨우침은 함부로 發할수 없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학문을 할 때는 높고 기묘하여 玄妙한 생각을 갖지 말고 우선 마땅히 本分の 명칭과 理致上에 의거하여 간절하고 가까이 하며 낮고 평평하며 명백한 공부를 하여, 연구하고 체험해서 오랫동안 쌓으면 자연히 날로 높고 심오하며 원대하여 다할 수 없는 부분을 볼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진리를 터득하게 된다고 여긴다.

지금 여기에서 논한 바는 본래 그 高妙함을 지극히 하여 마음을 말하고자 하였는데, 도리어 체와 용을 刑器에 국한시키고, 心·性을 아득하고 어두운 것으로 돌렸으니, 이는 단지 자기의 학문에 해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後生으로 하여금 서로 보고 본받아서 빈 말만 배우게 할 것이니, 斯文에 폐단을 남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깊은 내용을 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연로는 이것을 보고 어떻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내 일찍이 들으니, 先賢 중에 의논을 너무 지나치게 높게 한 자가 있어, 또한 이러한 병통을 면치 못했다 한다. 예를 들어 楊龜山<sup>9)</sup>은 道의 高妙함을 지극히 말하기 위하여, ‘仁義로써 도를 다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바로 莊子와 列子가 인의를 하찮게 여기고, 道를 窈冥昏默하다고 한 말과 같은 것이다.

胡五峯<sup>10)</sup>은 性의 고묘함을 지극히 말하기 위하여, “善으로써는 性을 말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善이 낮고 淺近하여 性을 累할까 염려하여, 도리어 告子の “성은 여울물과 같아서 동쪽과 서쪽으로 흐른다.”는 말로 떨어진 것이다.

胡廣仲<sup>11)</sup>은 동·정의 妙를 지극히 말하기 위하여, “동·정의 밖에 별도로 動과 대칭할 수 없는 靜이 있으며, 정과 대칭할 수 없는 동이 있

9) 楊龜山: 구산은 楊時의 호이다. 자는 中立이며 시호는 文忠으로, 明道 程顥와 伊川 程頤 형제를 사사하였다.

10) 胡五峯: 오봉은 胡宏의 호이다. 자는 仁仲이며 胡安國의 아들이다. 어려서는 龜山 楊時를 사사하였으며, 뒤에는 부친의 학통을 이었다.

11) 胡廣仲: 광중은 胡實의 자인바, 오봉 胡宏의 아우이다.

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금 연로가 말한 ‘형상이 있기 이전에 어찌 일찍이 체가 있을 수 있으며, 동하기 이전에 어찌 일찍이 용이 있을수 있느냐.’는 말과 글자는 비록 다르나 똑같은 것이다.

하나는 동·정을 거칠고 친근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상대할 것이 없는 것을 가르켜 동·정의 묘라고 하였고, 하나는 체와 용을 조잡하고 친근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체·용이 없는 것을 가르켜 도의 묘라 하고, 또한 마음의 묘라 한 것이다. 이는 그 이른바 ‘묘한 곳이라는 것이 다만 한 체와 한 용,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는 사이에 있고, 이 외에 별도로 묘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것이다.

아! 훌륭하다. 朱夫子께서 호광중의 말을 격파하여 말씀하기를 “動과 상대될 수 없으면 靜이라 이름할 수 없고, 정과 상대할 수 없으면 동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하셨는데, 나도 이르기를 ‘이미 정을 가르켜 체라고 하였다면, 다시 가르켜 체가 없는 곳이라고 말할 것이 없으며, 이미 동을 가르켜 용이라고 하였다면 다시 가르켜 용이 없는 곳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다.’한다. 그러므로 양구산·호오봉·호광중 三賢의 말씀을 합하여 병통이 있는 것을 관찰한다면 연로의 병통을 알 수 있을 것이다.